

#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금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 화목의 사역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과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

성경: 고후 5:4, 9, 14-16, 18-20, 6:1, 7:2-3

### I. 우리는 화목의 사역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한다.

- A.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1.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께 주셨다—마 28:18.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왕의 왕이자 모든 주인의 주님으로 임명하셨다—딤후 6:15, 계 17:14.
- B.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자신의 존재에 의해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산다—고후 5:4.
1.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어떤 신뢰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후 1:8-9.
  2. 우리는 죽지 않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생명을 신뢰해야 하고,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하며, 이 생명에 의해 일해야 한다—고후 13:3.
- C.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다—고후 5:9.
1. 큰 뜻을 품고 있는 것은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진지하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골 1:10, 히 11:5-6.
  2.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분의 대사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의 열망은 오직 한 가지, 다만 당신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임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선포합니다.”
- D.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고후 5:14-15.
1. 강권되는 것은 조수(潮水)에 휩쓸려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수처럼 강하여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휩쓸어 간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한다.
    - a.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관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과 갈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 c.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d.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와 주님이 여전히 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과 하나이듯이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 E.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육체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에 따라서 사람들을 안다—고후 5:16.
1.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바깥 외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서 일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알아보아야 한다.
  2.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직업이나 지위나 재능이나 역량에 따라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에 따라서, 곧 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 F.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한다.
1.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고후 5:18-20.
  2.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다—고후 6:1-2, 롬 5:10, 히 7:25.
  3.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현재 위치에 의해 측정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더 많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후 12:2상, 5:20.

## II. 우리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 A. 우리는 (어떤 은사가 아닌) 생명, 곧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완전히 성숙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이 생명은 우리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이다—고후 6:1상.
- B.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적합한 것이다—빌 1:20, 4:22, 딤후 4:2상, 비교 대하 1:10.
- C. 우리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갖고자 한다면, 넓어진 마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후 6:11-13, 대하 1:10, 왕상 4:29.
1.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과 같다.
  2.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을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품을 수 있으며, 열린 입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잘못 인도되어 처하게 된 실지 상황에 관하여 솔직히 말한다—마 5:7, 6:14-15, 7:1-2.
- D. 우리는 넓어짐으로,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후 7:2-3, 살전 2:8, 빌 2:19-20.
1. 우리에게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시고 찾으시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비교 눅 15장.
  2. 언변과 은사와 능력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만질 수 없다—비교 고전 12:31하, 딤후 1:7, 몬 9-12.
  3.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후 12:15, 고전 9:22, 마 9:12.
  4. 공급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핌으로써 다른 이들을 따뜻하

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사람들을 보양하는 생명이다—엡 5:29, 잠 25:15.

5.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면하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목양했다—살전 2:7-8, 11-12, 행 20:19-20, 27, 31.
6.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갔다—고후 11:28-29, 고전 9:22, 비교 마 12:20.
7.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가리키는 그의 소유를 기꺼이 소비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 자신까지도 기꺼이 소비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이다—엡 5:25, 고후 12:15, 11:28-29.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새 언약의 사역자들

고린도후서 7장은 고린도후서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부분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살았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한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에서 나오는 바울의 영 안의 느낌을 감지하고자 한다. 7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을 때 중요한 문제는 바울의 느낌과 함께 그의 영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 공급하는 생명으로부터 나온 친밀한 관심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공급하는 생명으로부터 나온 친밀한 관심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사도나 복음 전하는 이가 되든 장로나 집사가 되든 관계없이 신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역자는 교회, 즉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믿는 이들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역은 단지 사도들이나 장로들에 의해 수행될 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사람에게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회복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근거하며, 거기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교회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곧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생명이 필요하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공급하는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수년 전에 나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믿는 이들이 되도록 격려하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공급하는 생명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는 책은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며,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지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사역하는 생활을 사는지에 대해 말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책을 읽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거의 오십여 년 기간 동안 나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여러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보았다. 특별히 나는 영적인 것으로 유명한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심지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합당하게 공급하는 생명을 살지 못했었다. 그들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는 방식으로 생활하지는 않았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공급하는 생명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열매 맺는 생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보는 공급하는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이다.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사람이지만 열매는 없을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영적인 것과 거룩함과 승리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질적으로 참되고 진실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열매는 없으면서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성경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열매 맺는 데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이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분부하시며, 심지어는 남아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공급하는 생명을 사는 것이다.

우리 집 주위에는 많은 과목(果木)들, 곧 복숭아나무, 레몬나무, 오렌지나무 등이 있다. 꽤 오랫동안, 어떤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제해버려야 할지 두어야 할지를 생각했다. 비록 그 나무들이 열매는 없었지만 계속하여 아주 잘 자랐다. 사실상 그것들은 푸르고 싱싱한 잎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열매는 없이 더 잘 자라는 것이 내게는 더욱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때때로 나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잎은 푸르고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으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믿는 이들의 예로서 들 수 있다. 그들에게는 공급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공급하는 생활이 있어야 함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 초기에 나는 고린도후서 7장에 관한 메시지를 몇 차례 들었다. 이들 메시지의 강조점은 하나님에 따른 근심이었다. 그러한 메시지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근심한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요점에 관한 메시지를 몇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장에 있는 바울의 느낌과 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친밀한 관심을 본다.

### 참된 관심이 필요함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지식이 풍성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공급하는 생명을 사는 대신에 다른 이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 줄지도 모른다. 어떤 형제가 다른 지방을 방문하여 집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집회의 결과는 많은 이들을 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틀린 말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옳은 말로 인해 죽은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목양할 때도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교회에서 집회를 갖는 형제가 단지 메시지 전하는 것만을 관심할 뿐,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한 참된 관심은 전혀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여 목양하고자 할 때도 우리에게 사랑스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지식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죽이는 것이다.

어떤 어머니들은 지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증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우 좋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스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머니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친밀한 관심을 갖는다. 반면에 어떤 의붓어머니는 지식이 많고 은사가 있으며 영리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관심이 부족하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친밀한 관심이다. 교회를 돌보는 것이나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다. 필요한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온 친밀한 관심이다. 교회와 함께 집회를 하는 형제들은 교회를 위한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단지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뛰어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을 관심해서는 안 된다.

젊었을 때 나는 고린도후서 7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였다. 나는 성경을 성스럽고 고전적인 책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은 내게 전혀 고전적인 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이 성경에 왜 있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7장과 같은 장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바울은 디도가 온 것으로 인해 격려를 받았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7절에서 그는 “그가 온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과 애통하고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전해 주므로, 나는 더욱 기뻐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은 왜 고린도후서 7장이 신약에 있는지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데 다소 부주의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을 주목할수록 나는 이 장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깨달을수록 나는 더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만일 우리에게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좋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심이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는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될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매우 좋은 간증이 <보았노라 그리고 들었노라>라는 책에 있다. 이 책에서 저자 데니스 맥켄드릭(Dennis Mckendrick)은 불신자들의 무리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울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변이나 은사나 능력은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만큼 깊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았다. 그러나 이런 징계까지도 깊고 친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종아리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영과 태도로 자신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심지어 그녀가 자녀의 종아리를 때릴 때에도 그녀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자신들을 징계하는 것이 사랑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사랑과 관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물론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특히 7장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친밀한 관심을 본다.

###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함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매우 감정적이었다. 13절에서 그는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외에도 디도가 기뻐하므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다비(J. N. Darby)는 ‘더욱 넘치게(more abundantly)’로 번역된 헬리어 관용구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울은 그의 공급하는 생활에서 매우 인간적이며 감정이 풍부했다. 바울은 너무 감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너무 깊고 친밀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 없이는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부족하여 서리처럼 차가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대신 심지어 그들을 더 차갑게 만든다. 이와 같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봄 날씨가 필요하다. 반복하거나 공급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공급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생활이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 주기를 배우라. 이것은 그들을 향해 친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친밀한 관심의 문제를 접하지 못한 채 고린도후서 7장을 읽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위한 참된 관심, 즉 애정 어린, 깊은, 친밀한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때로 다른 이들에게 바보 같거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관심해야 한다.

## 바울의 간청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고,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솔직한 권고는 삽입된 것인데, 그 목적은 빛나간 믿는 이들을, 더럽히는 어떤 것을 접촉한 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되돌림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2절은 믿는 이들에게 사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사도들을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연속이다. 이 구절부터 이 장의 끝까지에서 사도는 믿는 이들에게 간청하면서 그들에 대해 친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후에 위로받고 격려받아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바울은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는 실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좁고 자신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합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영을 갖지 않고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중에 자신이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2절에서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가정해 보자. 틀림없이 이것은 다른 이들의 깊은 심중을 만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고,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매우 친밀하고 사랑스런 방식으로 변호한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손하거나 정중한 말씨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본다. 바울은 말할 때 솔직했지만 또한 매우 친밀하고 정감이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과 그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직 우리와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는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깊고 부드러우며 친밀한 말인가! 얼마나 깊은 심중을 만지는가!

## 깊은 관심으로 인해 격려를 받고 기뻐함

고린도후서 7장 4절은 계속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는 매우 담대하며, 여러분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위로와 기쁨에 대한 헬라이어는 특정한 위로와 특정한 기쁨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말은 친밀하고 정감이 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육신은 몸과 혼을 포함하는 겉사람을 지칭한다. 싸움은 밖에 있었고 두려움은 안에 있었다. 이러한 싸움과 두려움은 외적인 몸과 내적인 혼에 연관된다. 육신 안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던 것은 영 안에 안식을 갖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대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의 반응에 대한 그의 깊은 염려 때문에 그의 영 안에 안식이 없었으며(고후 2:13), 심지어 그의 염려는 매우 무거운 압박이 되었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소식 때문에 디도를 보기를 몹시 갈망했다. 이제 디도가 왔을 뿐 아니라 그는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도에게 매우 커다란 격려이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그가 온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과 애통하고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전해 주므로, 나는 더욱 기뻐합니다.”라고 계속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바울은 그의 관심으로 인해 매우 감정이 풍부하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공급하는 생활, 즉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살게 될 것이다. 오직 공급하는 생활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공급하는 생활의 결과이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44장, 398-406쪽)